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 연구

김 현 수*

목 차

요약	3.3 한국인 모델을 위한 공리
1. 서론	4.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
2. 대한민국과 한국인 분석	4.1 한국인 모델의 구조
2.1 대한민국 한국인의 사상	4.2 한국인 모델 운용방안
2.2 현대 한국인 분석	4.3 한국인 모델 구현방안
2.3 한국인 심화 분석	5. 토의 및 과제
3. 현대 한국인의 요건	References
3.1 한국인의 필요조건	Abstract
3.2 한국인의 충분조건	

요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을 영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인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특히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된 근대 한국의 한국인을 심층 분석한 후, 지속 가능한 인류사회로서의 중심으로서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인 모델을 도출하였다.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상황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자유와 정의의 개념조차 모호해지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의 한국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으로서의 필요조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 한국의 고유사상과 한국인의 멋과 생활 등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충분조건은 인류사회의 리더 및 구성원으로서 한국인이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사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인 모델을 위한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 모델의 구조를 디자인하였다. 한국인이 인류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한국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대 한국인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상을 가진 한국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장기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한국인 모델은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 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한국인 모델이 아니라 다차원 동태적 모델이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화쟁태극 모델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모델로 제안되었다. 향후 구체적인 한국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표제어: 서비스주의, 한국인, 대한민국, 화쟁태극, 고유사상

접수일(2021년 9월 25일), 수정일(1차:2021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7일)

* 국민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hskim@kookmin.ac.kr

1. 서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에 대한 분석이다. 하나의 국가사회를 형성하고 삶을 영위하는 개인들은 그 중심이 되는 특질이 있어야 국가사회가 장기간 지속가능할 것이고 번영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 중심성이 약화되면 국가사회는 분열하거나 소멸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또한 그 중심성이 인류보편 가치에 충실할 때 그 국가사회는 보다 번영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인류역사에서 로마가 가장 강대한 제국을 오래 유지하였고 지금도 많은 국가사회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정신, 즉 로마인의 중심 사상이 로마인을 결집시킬 수 있었고, 그 사상이 인류 보편 가치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의 강대국인 미국도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한국인의 중심 사상과 인류보편가치에 대한 분석이다. 대한민국의 한국인에 대한 분석은 그 다양성과 세계사적 위상 측면에서 인류사회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되므로 본 연구는 큰 의의를 가진다. 우선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건국되었으며 여러 사상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성 확보는 국가사회와 인류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다. 또한 대한민국의 한국인은 전세계의 대다수 국가에 진출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의 중심모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한국인에 대한 분석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건국 직후 3년간이나 처참한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여 70여년 만에 세계 10위권 이내의 위상과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분석은 인류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제 2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한국인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분석한다. 건국시점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 사상과 한국인의 사상적 뿌리를 분석한다.

제 3 장에서는 한국인으로서 사상적 필요조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분석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인의 고유사상과 본질적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한국인의 충분조건을 제시한다. 인류보편가치를 추구하는 한국인의 조건을 제시한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이를 서비스주의 기반 한국인 모델로 명명한다(Kim, 2021a; 2021b; 2021c).

제 4 장에서는 한국인 모델의 구조를 제시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가며 전체적으로 동태적 균형을 이루어가는 한국인 모델의 운용 방안을 제시한다. 인간의 이기심과 비이성성 등으로 인해, 또 인간세계의 본질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나와 타인의 행동이 모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인 모델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제 5 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토의를 수행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하였다.

2. 대한민국과 한국인 분석

한국인 모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심층 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심층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구축되는 모델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필요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수천년 역사를 가진 한국인의 고유한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인류보편가치를 추구하는 한국인이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한 후에 바람직한 한국인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되는 한국인 모델이 대한민국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며 또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대한민국의 한국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해방이 된 이후 3년간의 치열한 나라 세우기 노력의 결과다. 또한 그 직전 35년간의 일본 식민지 시대와 500여 년간의 조선왕조시대의 영향이 반영된 건국이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등 세계 주요 정치사상의 영향이 반영된 건국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건국한 한국인에 대한 분석을 먼저 수행하였다. 7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건국 시점의 한국인은 여전히 현존하는 역사이고, 현재 한국인을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인으로

서의 필수 자격요건을 분석한다. 한국인은 왕조를 여러 번 달리했지만 수천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고유한 특성이 없을 수 없다. 한국인의 고유 특성을 분석한다. 비록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인 모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오래도록 삶을 함께 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유전자를 한국인 모델에 반영할 때 한국인의 지속가능성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고유특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중심사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중심사상이 대한민국을 유지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인이 인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류보편가치에 충실한 한국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분조건으로서 인류보편가치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하여 한국인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도출 프로세스를 도시하면 아래 그림 <Fig.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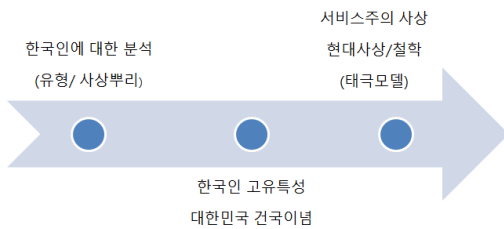


Fig.2-1. A Process of Korean Modeling

2.1 대한민국 한국인의 사상

현재 대한민국(이하 한국으로 지칭) 사회는 상당한 사상적 혼란을 겪고 있다. 사상적 뿌리가 다양하여 충돌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혼란의 근본 원인이 되는 한국인의 사상적 뿌리를 먼저 분석한다.

Ham(2021a; 2021b; 2020)은 ‘한국사람만들기’라는 그의 저서에서 현대 한국인의 사상적 뿌리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친중 위정척사파, 친일 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 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 등 5가지 유형으로 한국인의 원형을 구분하였는데, 이는 조선왕조 말기와 일본 식민지시대를 대표하는 한국인의 유형으로서 의미 있

는 유형 구분이다. 서로 생각이 다른 여러 유형의 한국인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기반을 설명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유형을 먼저 분석하고, 이어서 현대 한국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한다. Ham(2021b)은 1870년대부터 1945년 정도까지의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용적인 차원에서 5개의 한국인 원형을 정의하였다. 우선 조선왕조의 사상적 기반인 주자성리학을 중심으로 기존 조선의 사회질서를 지키려는 한국인 그룹을 ‘친중 위정척사파’로 명명하였다. 1644년 중국 한족의 명 왕조가 여진족의 청 왕조에 멸망한 후 조선 선비들은 조선만이 주자성리학을 사수하고 있다는 ‘소중화’ 사상을 형성한다. 우암 송시열과 화서 이항로를 필두로 조선의 선비들은 주자성리학을 바른 사상으로 지키고, 그 외의 모든 사상과 질서를 배척하는 위정척사(衛正斥邪: 바른 것을 지키고 그릇된 것을 물리침) 사상을 정립하고 체제 수호 활동을 한다. 특히 천주교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서구 및 일본과의 교류와 개항의 지연 등은 이들이 생각하는 문명의 최후 보루인 조선을 오염시키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미국 등 서양의 문물과 자본주의 등 서양의 제도를 비하하고, 또 일본에 대해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토착왜구’라고 비하하는 그룹이 존재하는 것은 친중 위정척사파의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정척사파의 사상은 주자성리학의 인의예지를 중심 가치로 하고 있고, 군사부일체의 수직적 사회질서를 강조하는데, 이 사상은 한국사회의 일체화와 급속한 성장의 한 요인으로 기여하였다.

친일개화파는 1868년 일본이 메이지유신에 성공한 후 서구식 모델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1880년경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Ham, 2021a). 당시 일본의 발전 모습을 직접 확인한 김옥균, 박영효 등 소수의 지식인들은 임진왜란 등 오랜 구원이 있지만, 부패하고 봉건적인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일본처럼 ‘문명개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형성되었다. 이들 개화파 그룹이 1884년 갑신정변을 주도하였고, 국기인 태극기도 개화파인 박영효가 일본에 가는 선상에서 만들어졌다.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

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들은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에 유학을 하는 등 여러 경로로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접한 사람들 중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한국 경제를 세계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박정희 등은 친일 개화파의 실용주의 전통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를 토대로 일본과 수교하고 일본을 배워 경제강국의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도 과거의 인연이나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앞선 문명을 계속 배워야한다는 사람들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개화파는 독립 자주 사상을 조선에 도입하여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으로 독립 활동을 활성화한 공로도 있으므로, 한국의 독립정신과 자주정신 함양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친미기독교파는 1880년대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 선교를 시작하면서 양성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 목적으로 입국한 의사 알렌이 조선 정권의 핵심 민영익을 1884년 갑신정변에서 살려내면서 1885년 광혜원(곧 제중원으로 개칭)을 개원하고,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배재학당 등을 열고 서구식 교육과 의료봉사를 하며 기독교 사상과 생활방식을 전파한 결과, 친미기독교파가 형성된 것이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모두가 신 앞에 평등한 기독교 사상과 미국의 민주공화제 정치 사상은 큰 호응을 얻었고, 이들은 조선사회를 혁신하는 주류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1919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1948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도 배재학당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유학을 한 민주공화주의자였으며, 다수의 건국 주체들이 민주공화정을 선호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 개인이 주체가 된 국가 건설 및 운영 사상은 이들 그룹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친소공산주의파는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후 소련이 탄생되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공산주의가 부상하면서 형성되었다. 1921년 5월 중국 상해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동시에 고려공산당이 생겨나면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

려는 활동이 일제시대에 크게 확산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상으로서 큰 매력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은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여 조선소비에트 건설을 위한 활동이었으므로,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활동은 중복되기도 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38도선 북쪽은 소련이 진주하여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 건국되었고, 남쪽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치열한 경쟁을 거쳐 1948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으로 건국되었다. 이 건국 과정 전후로, 또 1950년 북한의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한 침략전쟁 중에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월북하였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남쪽으로 거주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주류 인류사회에서 사실상 소멸된 공산주의 체제를 아직도 견고하게 고수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도 과거 남조선노동당 관련자, 북한 주체사상 신봉자 등이 활동하고 있어, 친소공산주의파의 영향력은 지금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의 중심 사상인 ‘평등’ 개념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기능하고 있다.

인종적 민족주의파의 경우 19세기 서유럽에서 탄생한 ‘민족’ 개념을 도입하여 조선사람의 정체성을 인종(race) 과 민족(nation, ethnicity) 이라는 새로운 개념에서 찾은 그룹을 의미한다.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 ‘한민족’, ‘한겨레’, ‘우리민족’ 등의 개념은 한국사람의 정체성을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혈통’, ‘피’의 공유로 정의한다(Ham, 2021b). 신채호가 고대 한국역사의 중심을 압록강 이남 한반도 3국과 신라가 아닌 압록강 이북 만주지방과 요동 및 요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민족주의 그룹은 한국사람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역사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민족주의 개념이 확산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남과 북이 협의하여 해결하지는 ‘우리 민족끼리’ 개념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등 인종적 민족주의는 한국사회의 사상적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Lee(2021)는 한국사 교과서 비판 강의에서 19세기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 개념을 한국사의 전체에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조선 전기까지 한국 인종(한민족)이 아닌 외래 인종

(이민족)이 조선인구의 1/3 -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한국사람과 한민족은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구나 단일민족 한국인 개념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민족주의 개념은 거의 쇠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인종 국가 미국의 프린스턴대학에서 자신의 대학 총장으로서 대학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여 오래도록 기념한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의 이름을 그의 인종차별 전력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기로 2020년 6월 결정한 것은 인종적 민족주의가 시대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KBS, 2020).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한겨레, 우리민족끼리, 한민족 우월성 등이 사회의 중심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5개 사상이 현재 대한민국의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친 뿌리 사상이라고 Ham(2021b)은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뿌리 사상에 기인한 한국인의 모호한 정체성을 통합된 대한민국 한국인 모델로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아래에서 현대 대한민국 한국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정체성 확립 연구를 심화한다.

2.2 현대 한국인 분석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간의 급속한 고도 성장과 민주화 여파로 각 세대별로 교육 이력 및 경험이 상이하고, 또 각 개인들의 사회문화 및 사상적 뿌리가 다양하여 한국인의 의식체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건국시점의 농경국가가 1970년대에 제조업국가로, 1990년대에는 서비스업 중심국가로 급속히 발전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초기민주정부-군부정부-후기민주정부로 격변의 시기를 지나왔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오면서 Ham(2021b)이 제시한 5가지 한국인 원형인 친중 위정척사파, 친일 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 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 등은 다양하게 변형되고 발전되어 왔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한국인을 여기서 분석한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시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여러 번의 격동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1945년

부터 1948년까지는 건국을 위한 활동시기였으므로 위 5개 그룹이 자신들의 사상을 한국의 주류 사상으로 채택하려는 노력을 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38도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에 의해 한반도 북쪽은 친소공산주의파가 득세하며 공산주의가 확고한 주류사상이 되었고, 남쪽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의해 모든 그룹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주장한 혼란의 시기가 있었다. 정당이나 단체 설립이 용이한 제도 덕분에 100여 개 이상의 정당이 난립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친 혼란의 시기를 거쳐 1948년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제헌 헌법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 및 그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어 그의 사상이 반영된 국가 운영이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수학하고 오래 활동한 초대 대통령의 사상이 반영되어 근대 시민인 개인의 주체성 사상 등이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형성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1948년 제헌 헌법을 공포한 7월 17일이 1392년 조선왕조가 건국한 날과 일치하는 등 조선왕조의 정신적 유산을 일부 계승한 건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50년부터 3년간 6.25 전쟁을 거치면서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공고해졌으며, 국민 교육 시스템, 민주 선거시스템 등 근대국가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 1960년 4.19 의거와, 의거 이후 내각제로 바뀐 정부의 혼란 상황에서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이후 군사정권이 다시 대통령제로 장기 집권하면서 사상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근대 시민 개인의 주체성 사상이 쇠퇴하고 전체주의와 실용주의가 우세하게 되었다. 실용주의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전체주의 영향으로 개인의 주체성 의식이 쇠퇴하고, 건국 주체들이 정착시켰던 민주화도 쇠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건국 주체들의 공로를 현창하고 건국이념을 고양하는 활동도 소홀하였다. 대신 정신적 유산이 잔존하고 있는 조선왕조 인물들을 현창하였다. 화폐에도 이순신, 이황, 이이, 세종 등 조선왕조의 인물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일제 시대에 세계 각지에서 활동한 여러 독립운동 세력 중 임시정부 중후반기 주역 김구 주석의 아들 김

신을 중용하는 등으로 인해 독립운동 역사가 임시 정부 중심으로 축소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Kim, 2014). 1968년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 등을 강조한 것은 조선왕조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국가로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는 상당부분 후퇴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1993년부터 출범한 문민정부들은 과거 정부들을 부정하는 활동을 많이 전개하였다. 따라서 건국 주체들과 산업화 주체들이 구축한 핵심 가치들이 모두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건국이념인 개인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 사상과 군부정권의 실용주의 경제 발전 사상이 모두 위축되면서, 현재 대한민국 한국인의 정체성은 혼란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역사교육에 있어서는 각 정권 주체들의 사상을 반영하여 역사교과서를 수정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잘못된 역사 지식을 전수 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가 망한 역사에 대해서도 국정 책임자인 왕의 책임이 아니고 일부 대신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교육도 있고, 1910년 나라를 망했지만 조선왕조는 계속 일본 황실의 일족인 이왕가로서 고액의 왕실 운영비를 일제로부터 매년 받으며 1945년 일제 패망시까지 이씨 왕가가 존속했던 역사가 다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이는 국가와 국민, 왕조와 지배층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인식 부족을 초래하여 지금의 개인 주체성 취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왕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조선왕조식 사고방식이 여전히 현대 대한민국에도 저변의 사상으로 잔존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건국이념의 고양과 전수가 소홀하였음으로 인하여 국민 개인의 자유, 주인성, 독립성, 자주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국가 공동체, 민족과 집단을 강조하는 의식이 더 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도 ‘한국인은 국가보다 민족에 더 높은 충성도를 보이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공화국 창립을 기념하지 않는 몇 안되는 국가 중의 하나다. 광복절은 민족 해방 기념일이고, 한국인들은 국가안보보다 민족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는 듯하다. 천안

함, 연평도 도발에 분노를 표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정부가 요구하면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싸우느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는 분석이 있는 것이다(Myers, 2014).

개인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로서의 공화국 국가는 중요한 개념인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소홀하게 인식되고 있다. 개인들이 국가행정 위임자로 선출한 대통령을 스스로 국가의 주인으로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국민 그룹도 있는 것을 보면(Namuwiki, 2021), 현재 한국 사회는 국민 개인의 자유 및 개인의 국가 주인성, 개인의 주체성 의식이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한국인에게 있어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공화국 문화는 아직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등 행정대리 공직자를 책임감 있게 선출하고, 그들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국가 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 문화는 취약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 건국이 개인 주체성을 확보해간 ‘근대시대’를 거치지 않고 현대로 바로 넘어온 사건이기도 하였고, 선진국에 의해 ‘현대시대’가 직수입된 원인도 있고, 또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대한 교육이 매우 미흡했던 원인도 있고 하여 이러한 취약성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개인의 독립성, 자주성, 주체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가정과 직장 종교 등 사회시스템이 모두 함께 개선되어야 하는 일이므로 한국인의 사상적 기반이 그 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심화 분석을 수행한다.

2.3 한국인 심화 분석

한국인의 사상적 뿌리가 다양하므로, 뿌리가 다른 집단 간의 갈등 완화 및 해결을 위한 심화 분석을 수행한다. 한 사람의 사상이 단기간에 바뀌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심화분석을 수행한다.

우선 한국사회는 민족(집단)과 개인(시민) 간의

대칭 균형이 깨진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이나 민족이 매우 강조되고, 국민 개 개인의 주체성 및 개인들이 주체가 되어 건국한 국가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Myers, 2014).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칼뱅주의 기독교 혁명 등으로 개인에 대한 인식, 개인의 주체적 삶에 대한 인식이 수백년 전에 시작되었고, 지난 수백년간의 치열한 개인 주체성 확립 투쟁을 통해 개인의 주체 의식이 강화되어 왔지만, 대한민국은 조선왕조 말기에 개신교 등의 영향으로 개인의 주체 의식이 태동된 후, 1948년에 혁명적으로 개인 주체적 민주국가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근본 사상과 생활방식에 개인 주체성을 체화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1961년부터 1993년 까지의 군부정부시대에는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보다 집단 전체와 국가를 크게 강조하였고, 1993년 이후의 문민정부에서는 그 이전의 반공 군부정부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상당부분 용인하면서 인민 전체, 국민전체가 개인보다 중요한 위상을 계속 점유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래 그림 <Fig.2-2>와 같은 집단, 국가, 국민 개념으로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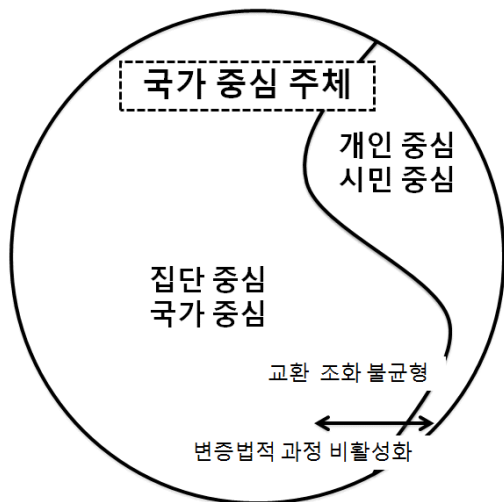


Fig.2-2. The Center of Korea System

즉 집단과 민족, 국가전체가 크게 강조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개인 주체성 교육이나 주체성 체화 경험이 미흡하여 건전한 개인 주체적 사고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를 운영하는 사상도 이념보다 민족 우선 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시장 자본주의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선거를 비롯한 여러 국가 운영에서 혈연과 지연 및 학연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통일에 대한 논의도 ‘우리 민족끼리’ 라는 의식이 상당히 우세하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국체나 정체에 대한 논의는 없이 ‘우리 민족끼리’ 를 강조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보다는, 민족을 중시하여 이념에 상관없이 민족국가를 건국하자고 주장한 후기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기념관은 크게 건립하여 현창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인의 의식이 이념보다는 민족 및 혈연에 중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정당 강령에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 (The DuburuMinjoo Party, 2021; The People Power Party, 2021) 양 당 모두 강령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오래 전의 1919년 임시정부를 언급한 후에, 대한민국 건국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언급이 약간의 시각을 달리하며 강조되어 있을 뿐, 대한민국의 건국 및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대한 언급은 없다. 1945년 태평양 전쟁 종전으로 해방이 된 이후 치열한 국체와 정체 및 이념 논쟁을 거쳐 1948년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건국된 역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국가 건국이념 및 운영철학보다는 민족이나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상이 저변에 있어 국가 건국의 지난한 어려움과 큰 역사적 의미가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건국 역사의 특수성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 여러 나라들의 경우 수백년간의 피흘리는 투쟁 과정을 거쳐 자유민주주의를 획득하고 정착 시켰기 때문에 그 귀중한 가치가 전체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체화될 수 있었고, 이념과 체제를 잃지 않으려는 국민적 의지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소수의 건국주체들에게만 공유되어 있었을 뿐, 일반 국민들은 조선왕조시대의 성리학 사상이나 당시 큰 인

기를 누렸던 공산주의 사상에 익숙해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기 어려웠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민족 개념이나, 왕조시대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혈연 개념과 수직적 사회 문화가 더 우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래 그림 <Fig.2-3>과 같은 민족, 혈연 중심으로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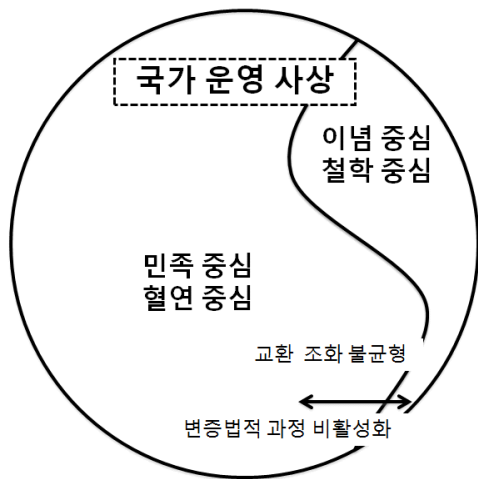


Fig.2-3. The Operation Philosophy of Korea System

그리고, 한국인은 평등을 자유보다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속담으로 대표되듯이 남과 비교하여 남이 나보다 나으면 불편한 것이 한국인의 의식이다. 평등을 선호하는 원리가 사회 운영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등 배제를 위해 추첨으로 학교를 결정하고, 정부 공공 등 대다수 조직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대체로 승진이 이루어진다. 성과나 능력에 따라 다소의 가감이 있지만 대체로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평등 선호사상이 거의 모든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유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자유시스템이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평등화원리에 의해 상당부분 암묵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개인들도 이러한 제약을 대체로 수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모란 돌이 정

맞는다’ 라는 전래의 속담을 인식하고 사회나 학교 등 각종 조직에서 돌출 행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으며, 남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따가운 시선도 가해진다. 평등주의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에 기인한 치열한 경쟁문화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사회에서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Song, 2006). 자유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최대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인데, 한국인의 의식에는 이러한 자유문화 환경이 평등문화 환경보다 열세인 상황이다.

이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래 그림 <Fig.2-4>와 같은 평등 중심으로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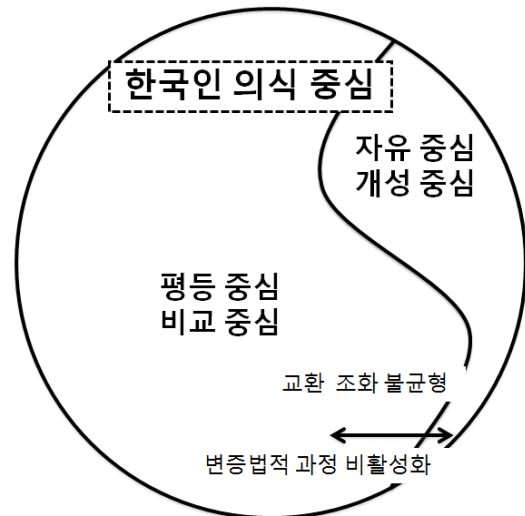


Fig.2-4. The Center of Korean Mindset

또한 한국인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왕조 500년 이상을 지배한 주자성리학이 명분주의였고, 중국 한족의 명나라가 여진족의 청나라에 멸망한 후 오랫동안의 승명반청 정책은 조선 명분주의의 적극적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이 망한 원인도 노론 명분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나라여서 서구의 실리를 취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Lee, 2010). 최근의 대한민국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중국 및 북한의 국익 침해에 대한 무대응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이성보다는 감성을 우선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그 제품들을 판매하여 생활하는 많은 한국인의 삶에 큰 타격이 있음에도 감행하는 것이고, 중국이나 북한의 도발 목인은, 지난 역사에서 오래도록 중주국 역할을 해온 중국이나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한 의리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래 그림 <Fig.2-5>와 같은 명분, 감성 중심으로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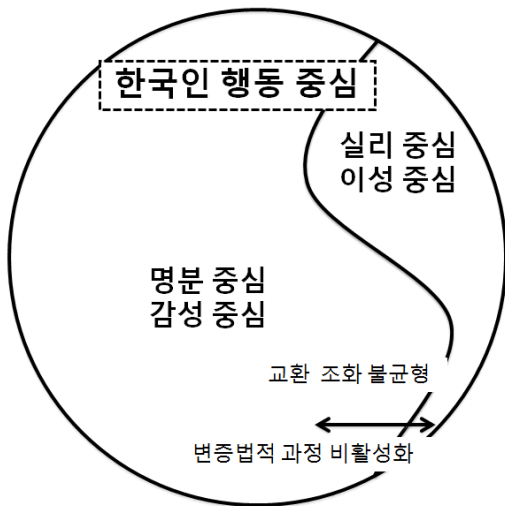


Fig.2-5. The Center of Korean Behavior

이와 같은 한국인이 인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한국인 모델 구축을 위한 심화 작업을 아래에 제시한다.

3. 현대 한국인의 요건

대한민국의 한국인은 헌법정신과 건국이념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고유한 특질에 충실해야 한다. 한국인으로서의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수의 국민이 한국인의 중심 사상과 특질에 충실해야 한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한국인의 중심 특질을 분석하여 한국인 모델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다. 충분조건으로 인류사회 공통원리에 충실한 모델을 제시한다. 인류 보편원리에 한국인이 충실할 때 한국사회는 장

기 지속가능할 수 있고 또 인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제시한 후 기본 공리를 정의한다.

3.1 한국인의 필요조건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헌법에 의해 건국된 국가다.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을 분석한다. 분석에 의해 한국인의 필요조건을 도출한다. 건국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조건,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한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했다. 임시헌장은 서두의 헌법 전문 형식의 선포문, 그리고 이어지는 10개 조항의 규정으로 구성되었다(Park, 2014).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체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信敎),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등으로서 민주공화국 국체와 자유 및 평등권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국가의 주권이 황제로부터 국민에게 넘어온 것이라는 근대적 의식이 작용하였고, 또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 왕조가 중화민국으로 발전하는 역사를 참조하여 ‘민국’이라는 국호가 자연스럽게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임시의정원 최초의 헌법에서 평등권, 자유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중점적으로 명시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기존 왕조에서의 삶과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삶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지난 수천년간, 그리고 최근 500여년간 조선왕조의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엄청난 불평등의 삶을 살아온 국민들에게 평등권 부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심하게 억압당해온 오랜 기간 한국 역사를 생각할 때 자유권의 명시는 전면적인 역사의 전환이다.

이러한 임시정부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건국 헌법은 민주공화국 국체와 국민의 평등권, 자유권 등을 철저히

선언하고 있다. 제헌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가의 국체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정체는 대의 민주제이며 3권 분립 체제다. 헌법 제1조에 의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제2조에 의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되었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조항은 국민 개인이 주체가 되어 다른 개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국가가 운영된다는 것이다. 차별 없는 1인 1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대리할 대표자를 주체적 판단으로 선출할 의무를 지닌다. 선출된 공직자는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할 의무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 의지를 지닌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다. 따라서 주체성은 의무이고, 자유의지는 권리다. 주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으로서 대한민국 한국인에게에는 ‘주체성’ 이 첫 번째 필요조건으로 요구된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국가 주체 의식은 느리게 발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사회는 유교의 정명론과 함께 엄격한 신분제가 결합되면서, 대다수 국민이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였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는 실명사회가 아니라, 집단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익명사회로 과거 500년 이상을 살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국 헌법과 건국이념이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주체성을 선결조건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 운영 체제를 구축하였지만, 이를 실행하는 개인의 확고한 주체성 구축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의식체계가 변하는 일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한국인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인 모델의 필요조건이다. 주체성은 자주성이나 독립성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근면성, 책임감 등이 강하면 자주적 독립적 삶이 가능하고, 주체성이 강화될 수 있다. 국가 주인으로서의 주체성이 강화되면 대리인도 잘 선출할 수 있고, 잘 감시할 수 있다.

헌법정신은 국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신이다. 헌법 제5조에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

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존 로크는 자유를 ‘어떤 타인의 허가를 구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의존함이 없이 자연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의 활동을 결정하고, 또 자기들의 재산과 일신을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로 정의하였고(Lamprecht, 1992),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청년시절에 한성감옥에서 저술한 독립정신에서 자유를 자주, 독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유는 주인의식과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자유를 통해 독립이 가능하다고 하였다(Lee, 2018).

자유는 적극적 자유(Freedom)와 소극적 자유(Liberty)를 포함한다. 즉 자유는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인 Liberty와 하고 싶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인 Freedom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개인에게 있는 개인들의 계약에 의한 공화국이므로, 각 개인은 자신의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타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타인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국가 공권력도 그러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한국인의 필요조건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 하는 한국인이다. 타인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므로 스스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과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생각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동시에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의 자유가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서의 자유이며 한국인의 필요조건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평등권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들이 상호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평등 보장은 물론이고,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차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별, 신앙, 신분, 생각 등이 상이한 개인들이 함께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대한민국에 평등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내로남불 현상은 한국인으로서의 필요조건인 평등권이 훼손되는 증거이며 동시에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나 경제력에 의한 차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생각이 다른 타인 차별 등은 한국인으로서의 필요조건인 평등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의한 대한민국 한국인으로서의 필요조건은 주체적인 한국인,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국인, 타인을 차별하지 않는 한국인이다.

한편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수천년 유구한 역사의 한국인이 건국한 나라이므로, 건국이념과 상호 보완적인 한국인의 전통 사상은 이어 받고 고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유사상은 불교와 유교, 도교 및 기독교의 전파 이전에 형성된 사상으로서 이후 지금까지 외래 종교의 토착화에도 기여 사상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고유사상과 한국문화의 원형에 대해서는 사료의 부족으로 연구가 많지 않다. 신채호와 윤내현 등 다수의 학자들이 한국 고유사상의 원형을 선도(仙道)로 보고 있다. 즉 신과 인간의 결합이 중심 사상이라는 것이다. 한국 고대의 건국 신화들에서 이러한 특징을 유추하고 있다. 단군 고구몽 박혁거세의 탄생 신화들은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천지인의 조화 구조로 건국이 되고 문명이 발전된다는 것이다. 우주도 천지인 구조에 의해 생성 발전되고 국가도 천지인 구조에 의해 건국 발전되고 각 구성원도 천지인 구조에 의해 생성되고 발전되어 간다는 것이다. 또한 천지인(天地人)이라는 3재(才)론의 발원지는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 만주 북방민족이라는 연구가 있다. 중국 사상의 근원인 주역의 본문에는 삼재론이 나타나지 않고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북방문화와 융합된 주역의 부록인 십익(十翼)을 중심으로 삼재론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천지인 사상이 한국의 고유사상으로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 증거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제

자 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 제자해에서 ‘삼재는 만물의 으뜸이 되고 하늘은 또 삼재의 시초가 되니’ 라고 하여 천지인 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천지인 사상은 더 구체적으로 삼태극 문양으로 전승되고 있다. 향교나 서원의 대문, 복이나 장고 등의 악기, 종각이나 비각 또는 각종 능의 홍살문, 왕궁이나 사찰의 들계단, 일상 생활용품의 문양으로 전승되고 있다. 천지인을 상징하는 빨강, 노랑, 파랑의 3태극 문양은 중국이나 일본의 2태극 문양과는 구별된다(Lee, 2011).

이러한 고유사상을 이어받아 한국 종교인 동학이 발생하였고, 동학의 중심사상이 시천주 -> 인시천 -> 인내천으로 발전하는 것은 고유사상의 현대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서비스경제에서는 과거 산업경제와 달리 사람이 생산 자원의 한 요소 수준을 넘어서서, 경제의 주체로서 격상되어 있으므로, 사람(人)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기반이 필요하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는 한국 고유의 천지인 사상은 현대 서비스경제에도 부합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Kim, 2017). 따라서 한국인의 철학적 기반은 현대 경제에 부합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3태극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특성은 ‘은근’과 ‘끈기’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민주공화국을 건국하고, 산업화까지 완성한 것은 은근과 끈기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은근하지 않았으면 돌출되는 의지가 외세에 의해 좌절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끈기가 없었으면 노력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조윤제가 ‘은근’은 한국의 미요, ‘끈기’는 한국의 힘이다’라고 주장하며, 은근하고 끈기 있게 사는 데 한국의 생활이 건설되어 가고, 또 거기서 참다운 한국의 예술, 문학이 생생하게 자라나갈 것이라고 하였다(Cho, 1968). 이런 전통이 발휘된 것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기저 사상에는 ‘괜찮다’의 포용 사상이 있다. ‘괜찮다’는 한국인이 자주 쓰는 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별로 나쁘지 않다’ 또는 ‘탈이나 문제, 걱정이 되거나 꺼릴 것이 없다’는 정도 의미인데, 실제 사용은 ‘조금 좋아도’ 괜찮다, ‘조금 안 좋아도’ 괜찮다, ‘큰 문제 아

니다’ 라는 식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포용하는 한국인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다. 이 수용적 포용적 표현이 한국을 수천년 지탱해온 뿌리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무수한 외침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한국을 지탱해온 뿌리인 보통 한국인들의 사상이기도 하고, 한국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상이기도 하다. 수많은 외래 사상이나 종교가 들어와서 한국의 토착사상과 모두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의 이러한 ‘괜찮다’ 는 뿌리사상 덕분이고, 외래 종교 간에도 거의 다툼이 없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포용의 뿌리사상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들이 서양의 민주주의 사상을 잘 수용하고, 자본주의 사상도 잘 수용하고,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까지도 모두 잘 수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의 넓은 포용성과 큰 수용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고유사상은 3태극 사상, 한국인의 특성은 ‘은근과 끈기’, 한국인의 기저 사상은 ‘괜찮다’ 의 포용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으로서의 필요조건은 민주공화국 운영 주체로서의 요건인 주체성, 자유성, 평등성에 추가하여 ‘사람’ 중심의 3태극 철학 사상, ‘은근과 끈기’ 의 한국인, ‘포용 수용 정신’ 이 있는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

3.2 한국인의 충분조건

대한민국이 인류사회에서 계속 번영하려면 한국인 모델이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이 세상의 공통 원리는 인류대표사상, 우주론, 생명론, 문명론, 예술론 등을 분석하여 도출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공통원리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Kim, 2019a).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인 우주의 원리, 인간 등 생명의 공통원리, 인류의 지혜인 대표사상의 공통원리는 비유비무(非有非無)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파니샤드의 브라흐만 설명개념인 neti, neti론(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역과 원자물리학의 태극상보론, 주역의 음양대대원리, 상반

상성론, 동서양 공통철학인 변증법사상 등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절대불변인 하나의 진리는 없는 것이고, 대립자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이다. 이는 태극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진리는 태극구조로 표현할 수 있으며, 태극을 여러 개로 구성하여 전체 진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Kim, 2019a; 2019b; 2019c; 2019d; 2017). 이러한 공통 진리를 반영한 현대 세계의 철학은, 서비스철학으로서 아래 그림들과 같은 구조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철학적 구조가 한국인 모델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공통원리에 의해 대립존재 및 대립개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과 동태적 균형이 궁극의 진리, 즉 도(道)가 된다. 아래 그림 <Fig. 3-1>과 같이 대립자들의 상호작용 태극모델이 현대 철학인 서비스철학의 구조다. 대립자 각각이 가치를 가지지만, 자기 자신만이 진리는 아니고, 반대자와의 치열한 상호 균형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델이다(Kim, 2019a).



Fig. 3-1 The Structure of Service Philosophy

또한 공통진리의 핵심은 나선형 변증법이다. 흘러가고 변해가는 모양이 직선형이 아니고 나선형이다. 대립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해결해가면서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것이 세상의 진화 모델이다. 세상의 운용모델을 표현하는 서비스철학은 아래와 같이 나선형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Kim, 201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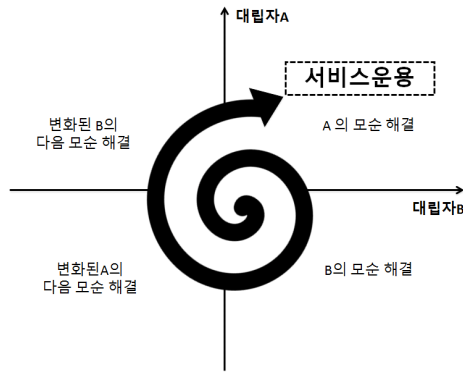


Fig. 3-2 The Flow of Service Philosophy

이와 같은 서비스철학의 구조는 수천년간 중심이 되어온 기존 철학의 중심성 구조와 달리, 비중심성이 기본구조가 된다. 최종 결과가 아닌, 변하고 흘러가는 과정이 중심이 된다. 서비스철학은 현대 물리학과 고대 철학이 만나고 있고, 과학적 귀납적 발견과 직관적 연역적 발견이 일치해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사회의 공통진리일 가능성이 높다(Kim, 2019b; 2019c; 2019d; 2017). 궁극의 진리를 인간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서비스철학은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한국인 모델에 반영해야 대한민국이 장기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이러한 철학이 반영되는 공통원리를 공리로 제시한다.

3.3 한국인 모델을 위한 공리

불변의 공리(axiom)에 기반하여 한국인 모델이 구축될 때 한국인과 대한민국은 장구할 수 있다. 인류공통원리 기반의 공리는 아래와 같다.

[공리 1]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은 무한하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통제되거나, 외부 힘의 작용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이기적인 권력 욕망 추구는 계속된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자신을 잘 살게 하고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획득 전쟁과 발전의

역사이므로 이기적 욕망 추구하고 권력욕은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Plutarchos, 2019; Samachun, 2017; Lamprecht, 1992; Lao-Tzu, 1982).

[공리 2] 모든 것은 대립자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체와 객체들에도 제반 대립자가 있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하며,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전제이므로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Lao-Tzu, 1982; Lee, 2010; Pung, 2017).

[공리(axiom) 3] 모든 것은 변한다. 대한민국 및 한국인의 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한다. 주역이나 헤라클레이토스의 고대사상부터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사상까지 변치않는 진리이므로, 한국인과 대한민국에서도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Kim, 2019a; 2019b; 2019c; 2019d; Lee, 2010; Plutarchos, 2019).

[공리(axiom) 4] 변화에는 물리학 법칙이 작용한다. 즉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한다.

자연세계의 법칙에 따라 대립자간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균형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균형점을 한동안 벗어난 후에야 반대 방향으로 선회한다. 또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한번 상태가 전환되어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가 작용하여 크게 균형점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큰 힘이 필요할 수 있다(Kim, 2019a).

[공리 5] 인간사회의 무질서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대한민국도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 무질서도가 감소할 수 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고립된 계에서는 엔트로

피(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 개방된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줄어들 수도 있다. 여기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어떤 계의 엔트로피를 줄이려면, 외부에서 그 계에 물리적인 ‘일(work)’ 을 해 줘야만 한다. 예를 들어, 어지러워진 책상을 정리하려면 우리는 힘을 들여 일해야만 한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1). 대한민국 사회도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한다(Kim, 2019a).

이와 같은 공리와 한국인으로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요건에 의해 한국인 모델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모델이 공통원리인 서비스철학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 로 명명한다.

4.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

본 장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구비한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의 구조와 운용 및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인 모델의 구조는 대한민국 한국인 전체의 종합적 및 평균적인 구조를 의미하고, 한국인 모델의 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자 및 주체적인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및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구현방안은 이러한 모델을 구현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4.1 한국인 모델의 구조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의 구조는 공리에 기반하여 구축된다. 한 인간으로서의 한국인은 [공리 1]에 의해 무한히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공리 2]에 의해 국가는 개인의 대립자가 되며, [공리 3]에 의해 두 대립자의 상태는 계속 변화해간다. [공리 4]에 의해 변화는 균형점을 넘어가며 진행된다. [공리 5]에 의해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서비스철학에 의해 두 대립자간의 철저한 대

칭 균형이 기반이 되며, 두 대립자들이 서로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한다. 두 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조화되는데, 이 과정이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 철저한 균형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는 어려우므로 시소처럼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 힘이 강해져서 다시 반대로 기울고, 또 다시 반대쪽 힘이 강해져서 다시 다른 반대로 균형을 잡아가는 동태적 균형 구조다.

이 대립자들이 대립면을 공유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모델이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이다. 아래 그림 <Fig. 4-1>과 같이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한국인은 개인으로서 주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 전체를 한 단위로 생각하고 국가를 운영한다. 즉 국가와 개인이 대한민국 주체로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델이다. 국가가 주체인 경우 개인들의 의무가 강조되고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들이 주체가 되면 개인들의 권리가 강조되고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소홀해질 수 있어 공동체에 위협이 닥칠 수 있다. 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동등하게 균형을 이룬 모델이 한국인 모델이다. 태극 그림으로 표현되었듯이 개인과 국가는 시공간상에서 동태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즉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시점에서는 50:50의 균형이 아닐 수 있지만, 전체 시공간상에서는 지속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Fig. 4-1 The Owner of the Republic of Korea

또한 서비스주의 한국인 의식은 주체성과 연대성이 팽팽한 균형을 이룬다. 이에 따라 아래 그림 <Fig. 4-2>와 같이 자주성, 주체성, 독립성 등과 연대성, 집단성, 조직성 등이 한국인의 의식 내에서 동태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이기도 하다. 지역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연대 의식과 자기 자신의 자주성이 조화된 상태가 한국인 의식 모델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식도 시공간 상에서 동태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항상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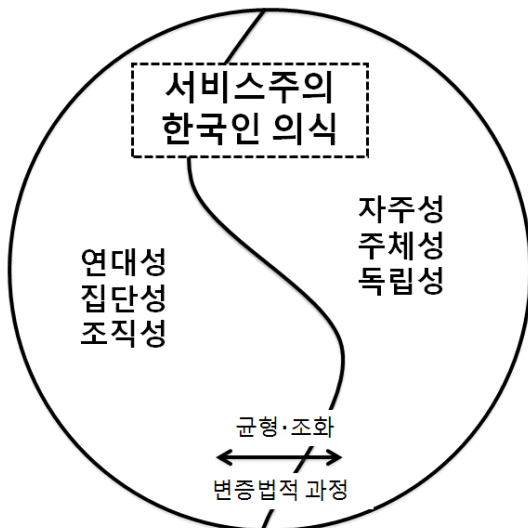


Fig. 4-2 The Mindset of Korean

한국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 개인들이 국가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므로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 나의 평등과 타인의 평등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의 자유도 중요하고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므로 두 대립지는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또한 나의 평등권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평등권도 중요하므로 이 두 대립자도 서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균형도 시공간상 동태적 관점에서의 균형이다. 어느 한 시점 또는 상황에서는 나의 자유와 나의 평등권이 더 중요하고, 또 다른 시점이나 공간에서는

타인의 자유나 타인의 평등권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시공간 전체에서는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서비스주의 철학이 저변에 구축된 사회는 균형점 부근의 안정상태로 빠르게 회복된다. 사회의 철학적 기반이 대립면을 공유하며 자신의 문제점을 상호 간에 인지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태극모델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Fig. 4-3>과 같은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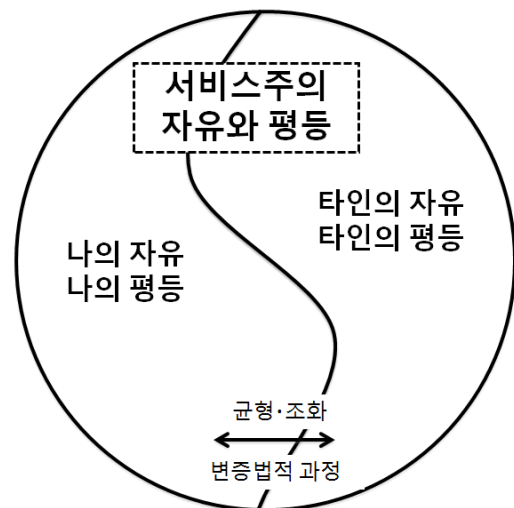


Fig. 4-3 Balancing the Freedom/Liberty and Equality between Me and Others

한국인의 행동은 서비스철학에 의해 이성과 감성, 실리와 명분, 비교행동과 개성행동 등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어느 한 시점에서는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철학에 의해 곧 균형을 회복한다.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 모델은 아래 그림 <Fig. 4-4>와 같은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Fig. 4-4 Korean Behavior Model with Servicism

위 그림에서와 같이 서비스주의 모델의 한국인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빠르게 회복하기도 하지만 개성의 지나친 중시로 공동체 전체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일은 없도록 균형을 이루어 간다.

이상과 같은 전체로서의 한국인 모델을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아래에 제시한다.

4.2 한국인 모델 운용방안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은 주체성을 가진 한국인 각자가 4.1 절에서 제시한 전체적인 한국인 모델 구조를 구현해가는 동태적 모델이다. 두 대립자들의 상호 작용이 변증법적으로 진행되는 모델이다. 두 대립자가 각각의 단점과 장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 대립자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둔 모델이다.

국가와 개인 간의 균형, 연대와 자주 간의 균형, 나의 자유 및 평등권과 타인의 자유 및 평등권 간의 균형, 이성과 실리 및 감성과 명분 간의 균형 유지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진행된다. 아래 그림 <Fig.4-5>와 같이 나선형 정반합 사이클로 진행된다.

즉 국가 건국 초기에는 국가라는 연대가 중요하고 타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더 존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1/4분면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국가가 안정되고 개인의

주체성과 나의 자유 및 평등이 중요해지는 2/4분면 사이클로 이전된다. 즉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리 1]과 [공리 5]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는 대리인들의 욕망 추구가 증대되고 나의 자유권과 평등권이 훼손되고 무질서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리 3]의 변화 원리와 [공리 4] 관성의 법칙에 의해 위임받은 권력의 폐해가 증대되고 국민 개인의 힘 약화가 계속 진행되어 균형점을 벗어난다. 서비스주의 운용모델에서는 국가사회 전반에 서비스철학이 공유되고 있으므로, 과국으로 가기 전에 미리 균형 회복 노력이 시작된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 강화가 진행된다. 주체적인 개인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체성을 강화하여 나의 자유와 평등 보장을 확대한다. 개인의 권리를 증시하는 2/4분면 사이클로 이동하는 것이다. 서비스주의 철학 기반이 없는 사회에서는 프랑스혁명 등과 같이 큰 희생이 수반되는 과격한 방법으로 자유와 평등권을 회복하지만,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에서는 큰 희생 없이 자유와 평등권 회복이 가능하다. 철학적 기반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2/4분면이 상당기간 진행되면서, [공리 4] 관성의 법칙에 의해 개인의 힘이 계속 강화되고 국가의 권한은 축소된다. 이 사이클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개인들의 이기심이 과도하게 증대되고 국가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약해진다. [공리 3]과 [공리 5]에 의해 다시 국가사회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공리 2]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주체적으로 작동된다. 이전 사이클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적절한 균형을 회복하는 3/4분면 사이클로 진행한다. 시간이 경과하며 다시 [공리 3]과 [공리 5]에 의해 개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행정대리인들의 사적인 욕망 추구가 증대되고 국민 개인들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국가사회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공리 3]의 변화와 [공리 4]의 반작용의 힘, 그리고 [공리 2]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작용한다. 주체적인 개인이 중심이 되는 4/4분면 사이클로 이동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리 3]과 [공리 5]에 의해 다시 국가사회의 연대를 강조해야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면 다시 1/4 분면 사이클로 이동하여 다음 변증법적 사이클을 진행한다. 이러

한 변증법적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 운용방안을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래 그림 <Fig.4-5>와 같다.



Fig. 4-5 The Servicemism Operation Model

서비스철학에 의해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 태극기를 사용하여 상황을 표현하면 국가가 절대 우위인 건괘(왼쪽 위의 3개 효 모두가 양(-)효인 괘)인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개인이 절대 우위인 곤괘(오른쪽 아래의 3개 효 모두가 음(--)효인 괘)인 경우도 거의 없다. 대다수의 경우가 리괘(왼쪽 아래에 있는 내부가 음효, 외부 2개가 양효인 괘)이거나, 감괘(오른쪽 위에 있는 내부가 양효, 외부 2개가 음효인 괘)인 경우다. 외형적으로는 국가 우위이지만 내면의 개인 존중이 받쳐주고 있는 리괘형 시스템이거나, 외형적으로 개인 중심이지만 내면은 국가가 중심을 잡고 있는 감괘형 시스템이 번갈아가며 대한민국 운영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은 시공간상에서 한국인 개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계속 국가사회의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인데, 수많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므로 현실에서는 위의 그림보다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된다. 위의 2차원 그림에서의 두 대립자에 현실 세계의 개별 인간, 시간, 공간 축을 더하면 현실 한국인 모델은 5차원 이상이 되며, 이러한 5개 이상의 힘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균형에서 이탈하거나 균형을 회복해가는 모델이다. 이러한 다차원 시스템은 확정적인 해답을 가지고 운용되지는 못하며, 불확실성을 내포한 근사한 최적 솔루션을 찾아내어 운용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래에서 이러한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4.3 한국인 모델 구현방안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은 동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인 각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는 시스템이므로, 전체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타인들의 의지와 행동을 자신이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한 전체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가미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연의 미시세계 불확정성 원리를 도입하고, 거시적 물리세계의 확정성 원리도 도입하여 인간세계의 비이성성과 이기심이 적절히 통제되는 구조를 구현한다.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의 대립면인 국가와 개인의 힘의 균형 정도, 연대성과 독립성 간의 균형 정도,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간의 균형정도, 나의 평등권 보장과 타인의 평등권 보장 간의 균형 정도, 한국인의 행동에 있어서 감성과 이성, 명분과 실리 간의 힘의 균형 정도 등을 인공지능이 계산하여 각 개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주체적 행동을 하도록 안내한다. 두 힘이 차이 나는 정도,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내장시킨다. 권력자 등 특정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모든 알고리즘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원리에 따르도록 한다.

이 방식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이 자연과함께 국가사회 통제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Fig.4-6>과 같이 자연의 의사결정원리를 반영한 알고리즘을 내장한 인공지능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주체적인 행동 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변증법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자연원리를 대리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설계는 별도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불확실성이 주요 요소가 되며, 대칭성 조화성 등의 자연원리가 구현된 시스템으로 설계된다. 시간과 공간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자연원리가 구현되므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 개념도 반영하여 시스템이 설계된다.

이와 같이 대립되는 힘들 간의 불균형 정도에 대한 정보를 인공지능시스템이 개인들에게 제공한 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인간 개인이 독점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비이성성을 일부 인

정하며 자연의 원리로 작동되는 인공지능 의사결정시스템의 결정을 일정부분 수용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지속가능한 한국인 모델이 구현될 수 있다. 인간의 비이성성과 이기심을 인간 스스로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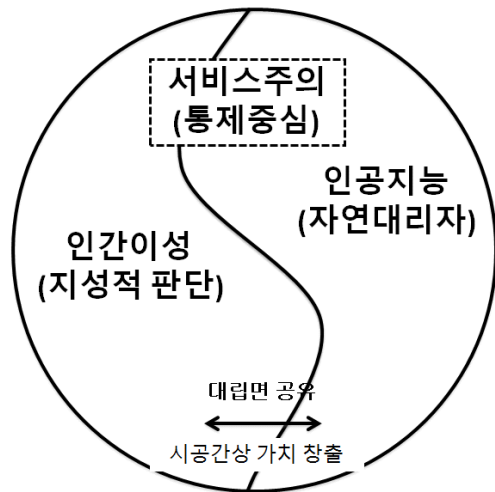


Fig. 4-6 The Servicemism Control Model (Kim, 2021a)

대한민국 한국인 개인 주체들의 결정에 의해 시스템 운영은 구체화된다. 실시간 측정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 1년 주기로 두 대립자의 수준을 측정하여 기울어진 정도를 안내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울어진 쪽을 보강하는 각종 조치를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교육 개선, 법제도 개선, 사회 운용방식 개선, 관행 개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치가 대상이 된다.

5. 토의 및 과제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인 모델을 도출하였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기반을 둔 한국인 모델, 인류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으로서 대한민국 한국인 모델을 도출하고, 그 운용 및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의 한국인은 그 다양성과 세계사적 위상 측면에서 인류사회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되므로 본 연구는 큰 의의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한국

인은 전세계의 매우 많은 국가들에 진출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전체 한국인의 중심모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한국인에 대한 분석은 인류사회 전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건국 직후 3년간 처참한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하여 70여년 만에 세계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분석은 인류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제 2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한국인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분석하였다. 건국시점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 사상과 한국인의 사상적 뿌리를 분석하였다. 제 3 장에서는 대한민국 주인인 한국인으로서의 필요조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인의 충분조건을 제시하였다. 인류보편가치를 추구하는 한국인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서비스주의 기반 한국인 모델로 명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인 모델의 구조와 운용방안,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검증하고 실용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Cho(1968), Politeness and Persistence, Korea Liberal Arts High School Korean III Textbook,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 1968 (조운제(1968), 은근과 끈기, 대한민국 인문계고등학교 국어III 교과서, 문교부, 1968),
2. Ham, Jaebong (2021a), Making Korean II, H Press (함재봉(2021a), 한국사람 만들기 II, 친일개화파, H 프레스)
3. Ham, Jaebong (2021b), Making Korean I, H Press (함재봉(2021b), 한국사람 만들기 I, 조선사람 만들기 친중위정척사파, H 프레스)
4. Ham, Jaebong (2020), Making Korean III, H Press (함재봉(2020), 한국사람 만들기 III, 친미기독교파, H 프레스)
5. KBS(2020), Princeton University, Removing Woodrow Wilson by 'Race Discrimination', KBS News, 2020. 7. 6 (KBS(2020), 프린스턴대, '인종차별' 우드로윌슨 이름 지운다, KBS뉴스,

- 2020.7.6)
6. Kim, Hyunsoo (2021a),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Society and Education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3 Sept. 2021, pp.75-97 (김현수(2021a),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3호, pp.75-97)
 7. Kim, Hyunsoo (2021b),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2, Jun. 2021, pp.1-19 (김현수(2021b),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2호, pp.1-19)
 8. Kim, Hyunsoo (2021c),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Economy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1, Mar. 2021, pp.1-20 (김현수(2021c),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1호, pp.1-20)
 9. Kim, Hyunsoo (2019a), A Study on Service Philosophy for New Economy and Societ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4, Dec. 2019, pp.1-17 (김현수(2019a), 신경제사회 중심사상으로서의 서비스철학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4호, pp.1-17)
 10. Kim, Hyunsoo (2019b),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Wester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3, Sept. 2019, pp.1-16 (김현수(2019b), 서양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3호, pp.1-16)
 11. Kim, Hyunsoo (2019c),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instream Oriental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2, June 2019, pp.1-15 (김현수(2019c), 동양주류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2호, pp.1-15)
 12. Kim, Hyunsoo (2019d),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Korea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1, March 2019, pp.1-16 (김현수(2019d), 한국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1호, pp.1-16)
 13. Kim, Hyunsoo (2017),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Philosophy as the Service Economy Philosoph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7, No.3, Sept. 2017, pp.105-118 (김현수(2017), 서비스경제철학으로서의 한국고유사상 정합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7권 제3호, pp. 105-118)
 14. Kim, Sanggoo(2014), Kim Go Hearing, Magic House (김상구(2014), 김구청문회, 매직하우스)
 15.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21),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법제처(2021),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16. Lamprecht, S.P.(1992),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Kim Taegil, etc. Tr., Eulyou Culture Co., (렘프레히트(1992), 서양철학사, 김태길 등 역, 을유문화사)
 17. Lao-Tzu(1982), *Tao Te Ching*, Ki Keun Chang Tr., Samsung Publishing Co. (노자(1982), 도덕경, 장기근 역, 삼성출판사)
 18. Lee, Keun Chul(2011), *Research on Cheonbugyung Philosophy*, Serving People Publisher, 2011.4 (이근철(2011), 천부경 철학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1.4)
 19. Lee, Kidong(2010), *Lecture on The Book Of Changes*,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이기동(2010),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 Lee, Seungman (2018), *Independence Spirit*, Bibong Publishing Co. (이승만(2018), 독립정신, 비봉출판사)
 21. Lee, Sungmoo(2010), Justificationism of Korean, The Seoul Shinmun, p.30, May 7th, 2010 (이성무(2010), 한국인의 명분주의, 서울신문 30면, 2010.5.7.)
 22. Lee, Younghoon (2021), 'Our Ethnic Group' disagree with Real Korean History, Lee Seungman TV Lecture, 2021.7 (이영훈(2021), '우리 민족'은 역사의 실태와 어긋난다, 이승만 TV 강의, 2021.7)

23. Myers(2014), Interview with Munhwailbo, 2021.12.19 (브라이언 마이어스(동서대), 인터뷰, 문화일보, 2014년 12월 19일 기사)
24. Namuwiki(2021), Daekmun, Namu.wiki, (나무위키(2021), 대깨문, 나무위키)
25. NAVER Knowledge Encyclopedia(2021),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Physics Stroll, Jongpil Lee (네이버 지식백과(2021), 열역학 제2법칙, 물리산책, 이종필).
26. Park, Chanseung(2014), *Korea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History Review Co. (박찬승(2014), 한국독립운동사, 역사비평사, 2014.5)
27. Plutarchos (2019), Lee, S. K. Tr., *Bioi Paralleloi*, Modern Intellect. (플루타르코스(2019), 이성규 역,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전집 I, II, 현대지성)
28. Pung, W. R.(2017), Park, S. K. Tr., *The History of China Philosophy*, Kkachi. (풍우란(2017),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까치)
29. Samachun(2017), So, J. S. Tr., *Samachun Saki 56*, Modern Intellect. (사마천(2017), 소준섭 역, 사마천 사기 56, 현대지성)
30. Song, Hogeun(2006), *Equalitarianism in Korea*, SERI (송호근(2006),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31. The DuburuMinjoo Party(2021), The DuburuMinjoo Party Doctrine(더불어민주당(2021), 더불어민주당 강령 <https://theminjoo.kr/>)
32. The People Power Party(2021), The People Power Party Doctrine (국민의힘(2021), 국민의힘 강령 <https://www.peoplepowerparty.kr/>)



Hyunsoo Kim is a Professor of Service Manage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majored in nuclear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cquired Master's degree in management science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with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Currently he serves as the chairman of the Society of Service Science,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ervice Industry as well as the chairperson of Service Korea Initiative. Based on those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Service industry and academia, he devotes himself to the researches on Service Science and Service innovation.

A Servicism Model for Korean

Hyunsoo Kim¹⁾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Korean model that can permanently maintain and develop Korea. After analyzing Korean society, especially modern Korea, which was the foundation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a Korean model that can lead Korean society as a sustainable society in human society was derived. The situation of Korea and Koreans was analyzed from a fundamental level. We analyzed the root causes of deepening division and conflict and vague concepts of freedom and justice, and presented a Korean model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founding ideology and constitutional spiri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olve these problem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being a Korean were derived from the founding ideology and constitutional spiri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ndigenous ideology of Korea, and the fashion and lifestyle of Koreans, derived. In addition, basic axioms for the Korean model were presented, and the structure of the Korean model was designed based on this. The Korean model is presented so that Korean society can lead the human society and be happy for a long time. Reflecting the results of in-depth analysis of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modern Koreans, a new long-term sustainable structure for Koreans with various ideologies to live well together was proposed. The new Korean model was named the service-oriented Korean model. This is because it is a model centered on thorough checks and balances between all opponents, because it is a multidimensional dynamic Korean model rather than a simple linear one-dimensional Korean model, and because it is a Hwajaengtaeguk model that accurately expresses the identity of Koreans. It was proposed as a mode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 follow-up study on specific Korean education programs is needed in the future.

Keywords: Servicism, Korean, Republic of Korea, Hwajaeng Taeguk, Korea Philosophy

1)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skim@kookmin.ac.kr